

돈은 노인에 대한 부정적 태도에 영향을 주는가?: 한국 및 독일 대학생 집단의 비교*

신 홍 임*

서강대학교

본 연구에서는 하나의 특정한 가치는 이와 상반되는 가치를 억제하는 경향이 있다는 Schwartz(1992)의 이론적 모형과 선행연구들(예: Bauer, Wilkie, Kim & Bodenhouse, 2012)을 토대로 돈의 개념이 활성화되면 사회적 약자인 타인에 대한 태도가 변화하는지를 검증하고자 했다. 또한 한국 대학생들에게 돈의 의미가 활성화되는 정도를 독일 대학생과 비교해보고자 했다. 이를 위해 한국과 독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노인에 대한 명시적 태도 및 암묵적 태도를 측정하고, 돈의 개념이 무의식적으로 활성화되는 상황에서 문화권에 따라 노인에 대한 태도의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비교하고자 했다. 연구 1(N=207, 한국 대학생=41.3%)에서는 한국과 독일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노인에 대한 태도를 자기보고식으로 측정했다. 그 결과 한국과 독일 대학생집단에서 모두 노인에 대해 젊은이에 대해서보다 더 부정적인 태도가 나타났으며, 특히 한국에서는 남자 노인에 대한 태도가 여자 노인 및 젊은 남자/젊은 여자에 대한 태도보다 더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연구 2(N=45, 한국 대학생=46.7%)에서는 연구참가자에게 작문과제를 통해 간접적으로 돈을 접화시킨 후, 노인/젊은이와 긍정/부정단어들을 각각 짝지어 제시하여 암묵적 태도를 측정했다. 그 결과, 돈의 접화조건에서 한국 대학생집단의 노인에 대한 암묵적인 부정적 태도가 독일 대학생집단보다 더 강하게 나타났다. 반면 이러한 차이는 돈이 접화되지 않은 통제조건에서 관찰되지 않았다. 이 결과는 한국에서 돈의 상징적인 힘이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이것은 문화권에 따라 차이가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주요어 : 돈의 접화, 암묵적 연합검사, 노인, 문화

* 논문을 발전시켜주신 세 분의 심사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교신저자: 신홍임, 서강대학교, 서울시 마포구 백범로 35 서강대학교 마태오관 718호, E-mail: shin7038@naver.com

최근 우리 사회에는 노인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뉴스와 신문에서는 병들고 허약한 상태속에서 외롭게 임종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다는 독거노인의 인터뷰와 부양부담으로 인한 가족간의 갈등을 자주 보도한다. 이러한 언론의 보도내용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효’의 가르침을 따르며, 노인을 공경하는 민족이었다는 점을 생각할 때, 사뭇 슬픈 현실이 아닐 수 없다. 우리의 전통적 유교사회에서는 노인에 대한 긍정적인 고정관념(예: 경험많은, 지혜로운)이 더 많았으며, 이것은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이 대부분인 서구사회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이영숙, 박경란, 2003; Palmore, 1975). 그러나 우리 사회에는 산업화와 초고속 경제성장 이후 물질적인 가치만을 중요시하는 문화가 팽배하면서,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노인에 대해 부정적인 고정관념(예: 부양부담, 편협한)과 차별행동이 증가하고 있다는 우려와 지적이 있다(김지연, 김민희, 민경환, 2012).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가 2000년을 기점으로 고령화사회로 진입한 이래 노인문제가 사회경제적인 이슈로 대두됨에 따라 노인 고정관념에 대한 연구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연구들이 체계적으로 거의 실시되지 않았음을 감안하여, 노인의 경제활동능력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돈’의 의미와 부정적인 노인 고정관념의 관계를 살펴보고, 이 결과를 다른 서구문화권과 비교해보고자 한다.

돈의 점화

지금까지 돈에 관한 연구들에서는 이득과 손실에 대한 주관적 경험(Kahneman & Tversky, 1979), 재화분배에 관한 의사결정(Dunn, Aknin & Norton, 2008), 돈과 행복과의 관계(Diener & Seligman, 2004; Quoidbach, Dunn, Petrides & Mikolajczak, 2012)를 주로 다루었다. 특히 돈과 행복과의 관계에 대해 많은 설문연구들이 실시되었다(Aknin, Norton & Dunn, 2009).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돈이 있으면 행복할 것 같다고

얘기하지만, 이 연구들에서는 돈과 행복감을 느끼는 정도는 거의 아무런 관계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Kahneman, Krueger, Schkade, Schwarz & Stone, 2006; Frey & Stutzer, 2002).

이에 비해 돈의 점화에 관한 연구들은 지금까지 많이 실시되지 않았지만, 흥미로운 결과들을 보고하고 있다. 이 연구들에서는 돈의 개념이 개인 자신과 사회적 관계에 끼치는 영향을 다루고 있으며, 요약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돈의 개념이 활성화되면, 개인 자신에게는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경험하는 상황에서 고통을 완화시키며, 자기효율성에 기여하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Zhou, Vohs와 Baumeister(2009)는 돈의 상징적 의미가 사회적 거부로 인한 심리적 외로움 및 육체적인 고통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돈을 그리는 과제를 사용했다. 이 과제에서는 참가자들에게 1달러 동전을 그리도록 한 후 이것이 실제보다 확대된 크기를 돈에 대한 욕구로 가정했다(Bruner & Goodman, 1947). 연구자들은 연구 도입부에 참가자들이 서로 소개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준 후, 사회적 거부의 조건에서는 상대방 참가자가 과제를 함께 하는 것을 거절했음을 알리며, 참가자에게 다른 과제를 수행하게 하였다. 이에 비해 사회적 승인의 조건에서는 상대방 참가자가 함께 과제를 하는 요청을 수락했음을 알리며, 두 사람이 짝지어 과제를 수행하도록 했다. 이후 동전그리기 과제가 수행되었을 때, 참가자들은 사회적 거부의 조건에서 사회적 승인의 조건보다 돈의 크기를 훨씬 더 크게 그렸다. 또한 참가자들은 삶의 또 다른 즐거움(예: 해변, 햇빛)보다는 돈을 선택하겠다는 응답을 더 많이 했다. 다른 연구에서는 참가자들에게 단어완성과 과제를 수행하게 하여 신체적인 고통(예: 두통, 통증)과 연관된 단어들을 활성화시켰을 때, 고통과 연관되지 않은 단어들(예: 조약돌, 점심)을 제시 받았던 조건에 비해 참가자들이 돈의 크기를 더 크게 그리는 경향이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연구 참가자들에게 지폐를 세면서 돈을 버는 것을 상

상하도록 한 조건에서 단순히 종이를 세도록 한 조건보다 사회적 거부의 상황에서 지각된 스트레스가 더 적었으며, 자아존중감의 감소가 나타나지 않았다. 연구자들은 돈의 상징적인 힘은 한 개인에게 자기효율성(self-sufficiency)을 갖게 해주기 때문에 정신적 및 육체적 고통이 있는 상황에서 고통을 경감시키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설명했다.

둘째, 돈은 개인의 사회적 관계에는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Mogliner(2010)는 돈의 점화가 일하고자 하는 동기를 증가시키지만,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사회적 관계에 대한 욕구를 상대적으로 감소시킨다고 했다. 또한 Vohs, Mead와 Goode(2006)도 돈의 점화조건(예: 월급)에서는 중립적 대상(예: 낱씨)이 점화된 조건에 비해 연구참가자들이 좀 더 혼자 시간을 보내고 싶어하며, 어려움이 있을 때도 도움을 요청하는 행동이 적고¹⁾, 남을 덜 도와주며, 타인들로부터 좀 더 거리를 두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고 했다. 마찬가지로 Liu, Vohs 및 Smeesters(2011)에서도 연구참가자들이 돈의 점화조건에서 통제조건보다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좀 더 자율성에 대한 욕구가 높아서 자신에 대한 모방행동을 자신의 영역을 침해하는 위협적인 행동으로 평가하며, 타인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경향이 더 강했다. 이러한 경향은 돈의 점화가 자기효율성과 갖는 관계에서 나타나는 양면성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으론 돈이 자기효율성과 직접적으로 연관되기 때문에 일에 대한 끈기있는 도전과 열정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려고 하겠지만, 다른 한편으론 타인과의 협동보다는 경쟁을 선호하

며, 사회적 맥락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타인들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자기효율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개인들(예: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사회구성원)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로 표출된다고 볼 수 있다(Vohs, Mead & Goode, 2008).

그런데 여기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돈의 점화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사회적 약자인 타인에 대한 태도를 변화시키는지의 문제일 것이다. 이와 연관해서 Schwartz(1992)가 제안한 사회적 가치의 원형모형(circular model of social values)과 이 모형을 검증한 최근의 연구들을 토대로 생각을 전개해볼 수 있다. Schwartz(1992)에 의하면 가치는 신념, 동기 및 바람직한 목표와 유사한 것으로 한 개인의 행동을 이끌며, 타인에 대한 판단기준이 된다. Schwartz(1992)의 이론적 모형에는 다양한 가치들(예: 부, 야망, 도음)이 10개의 유형(예: 성취, 배려)으로 구분되어 있다. 이 유형들은 서로 연관되거나 또는 서로 상반되거나 혹은 서로 연관성이 없는 관계에 있으며, 의미적으로 서로 연관될수록 서로 인접해있다. 또한 열 가지 상위유형은 궁극적으로는 네 가지 포괄적인 가치영역(예: 자기향상, 보존, 자기초월, 변화에 대한 개방)에 범주화시킬 수 있는데, 이러한 관계들은 개인적 욕구와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자주 부딪히게 되는 다양한 가치들의 갈등을 잘 보여주고 있다.

Maio, Pakizeh, Cheung과 Rees(2009)는 사회적 가치의 원형 모형을 토대로 특정한 가치를 점화시키면, 이와 연관된 가치들은 함께 활성화되는 반면, 상반되는 가치들은 억제되어 그 중요성이 감소됨을 보여주었다. 우선 연구 1에서 참가자들에게 특정한 가치가 선호되는 것이라고 소개하면 참가자들 역시 이 가치에 대한 태도가 달라졌다. 즉, 선호되는 가치와 인접해있는 영역들의 가치는 사전검사보다 사후검사에서 중요성이 더 크게 평정된 반면 상반된 영역에 있는 가치의 중요성은 이전보다 평가절하되었다. 계속해서 연구 5에서는 참가자들에게 단어분류과제를 통해 두 가지 상반된 영역(예: 자기향상, 자기초

1) Vohs 등(2006)의 연구에서는 연구참가자들에게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를 제시한 후, 돈의 점화조건과 통제조건에서 도움요청행동이 어떻게 다른지를 비교했다. 그 결과 참가자들이 돈의 점화조건에서 실험자에게 도움을 요청한 횟수는 통제조건보다 유의하게 적었다. 또한 돈의 점화조건에서 돈의 액수가 커질수록 도움요청횟수는 점점 더 적어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월)의 가치(예: 성취, 도움)를 간접적으로 점화시킨 후 성취행동에 있어서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살펴보았다. 예상대로 자기향상 영역의 가치가 점화된 참가자들의 과제수행도는 자기초월 영역의 가치가 점화된 참가자들보다 더 높았다. Maio 등(2009)은 이러한 일련의 연구를 통해 Schwartz가 제안한 원형모형을 지지했고, 가치의 점화가 행동에까지 귀결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흥미로운 것은 Bauer 등(2012)의 연구다. 여기에서는 물질주의의 점화가 개인적 맥락과 사회적 맥락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의미점화의 실험기법을 통해 보여주었다. 연구자들은 참가자들에게 컴퓨터 화면에 고가의 제품을 보여주면서 선호도를 평정하게 하면(물질주의 점화 조건) 중립적인 조건에 비해 사회적인 활동(예: 사회단체 참여)에 대한 선호가 개인적인 활동(예: 독서)보다 감소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또한 연구참가들에게 동일한 범주분류과제를 소비자의 관점에서 수행하게 하면(물질주의 점화 조건) 일반 시민의 관점에서 수행했던 조건보다 성공이나 경쟁 등의 자기향상의 영역과 연관된 가치들에 대한 반응시간이 더 빨라졌다. 이와 더불어 제한된 자원과 자원결핍을 강조하면서 물질주의를 점화시키면 타인에 대한 신뢰가 감소되고, 사회적 책임감을 덜 느끼는 경향이 나타났다. 연구자들은 이 결과를 물질주의는 상황적으로 점화시킬 수 있으며, 외부 환경에 산재되어 있는 물질주의와 연관된 많은 자극들은 우리를 자기향상과 연관된 영역에만 치중하게 하고, 사회적 삶에 대한 관심을 떨어뜨릴 수 있음을 경고했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돈이 개인적인 맥락에서는 자기효율성과 연관된 의미를 활성화시키지만, 사회적 맥락에서는 타인에 대한 관심이나 도움과 같은 자기초월과 연관된 의미의 활성화를 억제시킬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돈의 개념이 활성화되면 도움이 필요한 사회적 관계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으로 편향될 것을 예측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돈의 의미를 연구

참가자가 의식적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간접적인 점화기법으로 활성화시켰을 때, 두 개의 상이한 문화권의 참가자들에게서 사회적 집단에 대한 태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사회적 집단 중의 하나로 노인에 대한 태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Schwartz(1992)의 사회적 가치의 원형모형에 따르면 돈은 자기향상 영역의 성취와 연관된 가치이며, 노인에 대한 태도는 자기초월 영역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의 가치와 연관되기 때문에 서로 상반된 의미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돈의 개념이 활성화되면 이와 상반된 자기초월 영역의 가치의 중요성이 억제되어 노인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으로 변화될 것을 예측할 수 있다.

문화권에 따른 노인 고정관념의 차이

노인에 대한 고정관념에는 질병, 무기력함, 가난, 우울 등의 대체로 부정적인 내용이 많이 발견된다. 노인 고정관념의 내용에 대해 현재까지 문화권에 따른 차이나 활성화에 영향을 주는 상황적 변인이나 개인차변인에 대한 연구들은 거의 진행되지 않고 있으며(한정란, 2003), 그동안 실시되었던 몇몇 연구들에서 보고되는 결과들 또한 일치하지 않는다. Palmore(1975)의 연구에서는 미국에서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이 더 많이 나타나는데 비해 일본에서는 노인에 대한 긍정적인 고정관념이 더 일반적임을 보고했다. Cuddy, Norton과 Fiske(2005)도 아시아 문화권에 비해 서구문화권에서 부정적인 고정관념이 더 우세함을 보여주며, 이것을 집합주의 및 개인주의 간의 차이로 설명했다. 반면 다른 연구들에서는 아시아 문화권에서 서구문화권보다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이 더 뚜렷하고, 차별행동이 더 심함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다른 연구들(Harwood, Giles, Ota, Pierson, Gallois, Lim & Somera, 1996; Ryan, Jin, Anas & Luh, 2004)에서는 아시아 문화권이 서양

보다 노인에 대해 더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것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정적인 노인 고정관념을 문화보편적인 현상인 것으로 보고했다. Borogulu, Yoon, Luo와 Park(2006)이 미국 대학생과 중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노인 고정관념을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이 두 문화권에서 모두 노인이 젊은이보다 정신적 영역과 신체적 영역에서 쇠약하다는 응답이 우세했고, 사회적, 정서적 영역에서는 노인과 젊은이에 대해 모두 중립적인 반응을 보여, 노인 고정관념에 있어서 동양과 서양의 차이가 거의 발견되지 않았다. 이 결과들은 두 가지의 시사점을 준다. 첫째, 문화권에 따른 노인/젊은이에 대한 태도를 연구할 때, 좀 더 내용영역별로 세분화하여 구체적인 차이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²⁾. 둘째, 노인/젊은이에 대한 태도를 명시적으로 검사한 결과는 노인에 대한 공경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미덕인 아시아권 사회에서는 긍정적인 인상추구경향 때문에 연구결과가 혼입되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연구참가자가 자신의 반응을 의식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암묵적인 검사방법들을 보완하여 연구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암묵적 연합검사

사회적으로 바람직하게 여겨지는 속성들에 대해 개인은 부정적인 태도를 직접적으로 표출하기가 힘들다(이현지, 방희정, 2012). 한국에서는 전통적으로 노인을 공경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개인은 자신이 갖고 있는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숨기려 하거나 또는 이에 대해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있을 수 있다.

2) 예를 들어 Kite, Stockdale, Whitley와 Johnson(2005)은 노인/젊은이에 대한 태도를 매력, 건강, 행복, 독립성, 인지적 능력, 사회적 상호작용의 측면에서 세분화하여 조사할 필요성을 제안했고, 본 연구에서 참고한 Gluth 등(2010)의 연구에서는 도구성, 자율성, 수용성 및 통합성의 영역에서 노인/젊은이에 대한 태도를 구분하여 정교하게 측정해야 함을 주장했다.

따라서 노인에 대한 명시적 태도와 암묵적 태도를 구분하여 측정하는 것이 필요하고(Greenward, Poelman, Uhlmann & Banaji, 2009), 이 검사들 간의 차이를 통해 한 개인이 어느 정도 노인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는지를 분석할 수 있다. 노인에 대한 명시적 태도는 자기보고식 질문지를 통해 측정하며, 암묵적 태도는 Greenwald, McGhee와 Schwartz(1998)를 토대로 노인에 대한 암묵적 연합검사(IAT: implicit association test)를 설계하여 측정할 수 있다. 암묵적 연합검사는 한 개인에게 표상되어 있는 개념들간의 자동적인 연합강도를 측정할 수 있으며, 자기보고식 검사보다 좀 더 정확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노경란, 방희정, 2009). 또한 선행연구들(Nock & Banaji, 2007; Castelli, Zogmaister & Tomelleri, 2009)에 의하면 암묵적 연합검사는 한 개인의 마음에 현재 내재되어 있는 태도를 측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미래의 행동(예: 자살시도, 인종차별)을 예측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 개인이 노인에 대해 갖고 있는 암묵적 태도가 돈의 의미가 활성화되는 정도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비교해보고자 한다. 지금까지 선행연구들(Vohs 등, 2006; Liu 등, 2011; Bauer 등, 2012)에서는 돈은 한 개인에게 자기효율성을 증가하게 하고, 사회적 관계보다는 일을 선호하게 하며, 협동보다는 경쟁, 독립과 자율성을 연상시키고, 도움을 요청하는 타인에 대한 무관심이나 부정적인 정서를 갖게 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물질주의를 상황적으로 활성화시키면 성취와 경쟁의 개념이 활성화되지만, 이와 반대되는 사회적 관여, 타인에 대한 신뢰 및 동료인식의 개념이 억제됨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생각해볼 때, 돈의 의미가 활성화되는 상황에서는 중립적인 조건에 비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의미의 중요성이 억제되어 노인집단에 대해 좀 더 부정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돈의 의미가 활성화되는 정도는 한국 및 독일 문화권에서 상이한 양상을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한국에서는 서

구사회보다 산업화와 경제성장이 급속도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물질주의적인 가치관이 우세하고, 돈의 상징적인 힘이 서구사회보다 훨씬 더 강력할 가능성이 있다(박재홍, 강수택, 2012; 한세희, 2012). 그렇다면 한국 대학생들이 돈의 의미가 점화된 상황에서 노인에 대해 갖는 암묵적인 부정적 태도는 독일 대학생에서보다 더 뚜렷하게 나타날 것을 예측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및 독일 대학생들에게 돈의 의미를 활성화시켰을 때, 노인에 대한 암묵적 태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요약해볼 때,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아래와 같다.

첫째, 한국 및 독일 대학생들의 노인에 대한 명시적 태도에는 차이가 나타나는가? 선행연구들(Harwood et al., 1996; Ryan et al., 2004)을 토대로 볼 때, 노인에 대한 명시적 태도는 한국 및 독일에서 모두 전반적으로 부정적으로 나타날 것을 예측할 수 있다.

둘째, 한국 및 독일 대학생들의 노인에 대한 암묵적 태도는 돈의 점화에 따라 달라지는가? 한국 대학생들에게서 돈의 의미가 독일 대학생들보다 더 강력하게 활성화된다면, 돈의 점화조건에서는 한국 대학생들의 노인에 대한 암묵적 태도가 독일 대학생들보다 더 부정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연구 1

연구 1의 목적은 한국 및 독일 학생을 대상으로 노인 및 젊은이에 대한 명시적인 태도를 조사하는데 있다.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토대로 볼 때, 한국 및 독일에서 모두 노인에 대한 태도는 젊은이에 대한 태도보다 부정적으로 나타날 것을 예측할 수 있다.

방 법

참가자

한국의 수도권 소재 대학교에서 심리학개론을 수강하는 한국 대학생 86명 및 독일 T대학교에서 심리학개론을 수강하는 독일 대학생 121명(남학생 41.1%, 평균연령 만 20.7세, 표준편차 =2.55)이 참가하였으며, 참가자들은 어떠한 보상도 받지 않았다.

연구도구 및 절차

본 연구에서는 Rosencrantz와 McNevin(1969)이 개발하고, Gluth, Ebner와 Schmiedek(2010)이 수정한 노화 척도(Aging Semantic Differential; ASD)를 참조하여 노인과 젊은이에 대한 질문지를 구성하였다. 질문지는 한국 및 독일 대학생 모두에게 영어로 제시되었으며, 질문지에 사용된 단어들과 응답방식에 대한 설명이 한국어와 독일어로 사전에 구두로 제시되었다. 질문지는 4개 하위영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도구성(instrumentality), 자율성(autonomy), 수용성(acceptibility) 및 통합성(integrity)을 각각 측정한다. 도구성은 목표를 추구하는데 필요한 활동성, 생동감 및 적응능력을 의미하며(예: 적극적인(active)), 자율성은 자기효율성 및 자기주도성을 뜻한다(예: 독립적인(independent)), 수용성은 타인과 기꺼이 시간을 함께 보내며, 타인을 즐겁게 해 줄 수 있는 사회성과 연관되며(예: 관대한(tolerant)), 마지막으로 통합성은 스스로 자신과 만족하며, 낙관적이고 평온한 마음을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예: 낙관적인(optimistic)).

본 연구에서 사용한 노화척도 질문지는 제시되는 단어가 질문하는 대상에 의미적으로 어느 정도 가까운지를 구분하여 답할 수 있도록 총 48개의 형용사로 구성되었다(예: ‘적극적인(active)’의 단어는 60세-75세 사이의 노인에게 어느 정도 부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형용사들은 2개씩 짝을 이루어 7점 연속선상의 양극단에 위치하고 있다(예: 낙관적인(optimistic)-비관적인

(pessimistic). 참가자들은 남자 노인, 여자 노인, 젊은 남자, 젊은 여자들이 이 두 개의 형용사들 중 어느 쪽에 더 잘 부합하는지를 7점 척도 상에서 응답하였다(예: 1='optimistic', 7='pessimistic'). 이 단어쌍 중의 절반은 긍정적인 형용사가 연속선상의 왼쪽인 '1'에, 나머지 절반은 긍정적인 형용사가 오른쪽인 '7'에 위치했다. 결과의 산출에서는 점수변환을 통해 수치가 커질수록 긍정적인 형용사에 가까운 것으로 변환시켰다. 질문지는 60세-75세 사이의 남자/여자 노인과 20세-35세 사이의 젊은 남자/여자에 대해 각각 평정하는 두 개의 세트로 나누어 일주일의 시간간격을 두고 분리하여 실시하였다. 또한 질문지 제시순서를 역균형화하기 위해 참가자들 중 절반은 남자노인과 여자노인에 관해 먼저 평가했으며, 나머지는 젊은 남자와 젊은 여자에 관해 먼저 평정하였다. 노인 질문지와 젊은이 질문지는 성별로 분리하여 각각 실시하였다. 예를 들어 노인 질문지에서 참가자들은 제시된 24개의 단어쌍이 남자 노인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지를 응답한 후, 추가적으로 여자 노인에 부합하는 정도를 기록했다. 본 연구에서 질문지를 성별로 구분하여 두 번을 실시한 이유는 남자 참가자들은 대체로 구체적인 설명이 없을 경우 남자 노인을 생각하고 응답하며, 여자 참가자들은 여자 노인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Gluth 등(2010)의 연구에 기인한다.

결 과

노인 및 젊은이에 대한 명시적 태도

문화권에 따라 노인/젊은이에 대한 명시적 태도가 어떻게 다른지를 분석하고자 문화(한국 vs. 독일) * 대상(남자노인 vs. 여자노인 vs. 젊은 남자 vs. 젊은 여자) * 하위영역(도구성 vs. 자율성 vs. 수용성 vs. 통합성)의 삼원혼합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중 문화는 참가자간 변인이었으며,

대상 및 하위영역은 참가자내 변인이었다. 표 1은 한국 및 독일 대학생들이 24개의 형용사 단어쌍에 대해 노인과 젊은이에 대해 부합하는 정도를 7점 척도에서 평정한 수치를 하위영역별로 정리한 결과를 보여주며, 수치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형용사에 더 부합한다. 결과에 의하면, 우선 대상의 주효과가 유의하였다, $F(3, 204)=64.65, p<.001, \eta^2_p=.48$. 남자노인($M=3.77$)은 여자노인($M=4.22$), 젊은 남자($M=4.68$) 및 젊은 여자($M=4.81$)에 비해 가장 부정적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하위영역의 주효과가 유의하였다, $F(3, 204)=11.201, p<.001, \eta^2_p=.14$. 도구성($M=4.16$)의 영역이 자율성($M=4.57$), 수용성($M=4.31$) 및 통합성($M=4.44$)의 영역보다 가장 부정적으로 평가되었다. 반면 한국($M=4.34$) 및 독일 대학생($M=4.40$)이 응답한 수치에는 전반적인 차이가 없어서, 문화의 주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F<1$. 그러나 문화와 대상간의 상호작용이 유의했다, $F(3, 204)=6.93, p<.001, \eta^2_p=.09$. 한국에서는 남자노인($M=3.81$)이 가장 부정적으로 평가되었고, 여자노인($M=4.36$), 젊은 남자($M=4.53$) 및 젊은 여성($M=4.65$)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던 데 비해, 독일에서는 남자노인($M=3.74$)과 여자노인($M=4.08$)이 모두 젊은 남자($M=4.83$) 및 젊은 여자($M=4.96$)에 비해 더 부정적으로 평가되었다. 이와 더불어 대상과 하위영역간의 상호작용이 유의했다, $F(9, 198)=40.63, p<.001, \eta^2_p=.65$. 남자노인($M=4.67$)과 여자노인($M=5.16$) 및 젊은 여자($M=4.63$)는 젊은 남자($M=3.81$)에 비해 자율성의 영역에서 좀 더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다른 세 가지 하위영역인 도구성, 사회성 및 통합성의 영역에서는 남자노인이 가장 부정적으로 평가되었다. 마지막으로 문화, 하위영역, 대상간의 삼원상호작용이 유의했다, $F(9, 198)=4.59, p<.001, \eta^2_p=.17$. 표 1과 같이 한국 대학생들은 남자노인을 여자노인, 젊은 남자 및 젊은 여자에 비해 도구성, 수용성 및 통합성의 영역에서 가장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면 독일에서는 남자노인 및 여자 노인이 거의 유의한 차이

표 1. 한국 및 독일 대학생의 젊은이/노인에 대한 명시적 태도 검사결과(평균)

하위영역	문화	남자 노인	여자 노인	젊은 남자	젊은 여자
도구성 (예: 융통성있는(flexible))	한국	3.17 (1.61)	3.98 (1.61)	4.94 (1.29)	4.84 (1.41)
	독일	2.95 (1.39)	3.02 (1.35)	5.47 (1.05)	4.96 (1.36)
자율성 (예: 독립적인(independent))	한국	4.69 (1.41)	4.93 (1.47)	3.84 (1.49)	4.43 (1.58)
	독일	4.66 (1.10)	5.39 (1.13)	3.80 (1.08)	4.84 (1.21)
수용성 (예: 친절함(friendly))	한국	4.16 (1.38)	4.71 (1.63)	4.85 (1.18)	4.92 (1.35)
	독일	4.26 (1.21)	5.07 (1.19)	4.96 (1.10)	5.02 (1.09)
통합성 (예: 희망찬(hopeful))	한국	3.59 (1.18)	4.23 (1.30)	4.74 (1.21)	4.99 (1.01)
	독일	3.84 (1.15)	3.98 (1.23)	5.00 (1.15)	5.16 (1.43)
총합	한국	3.90 (.68)	4.46 (.74)	4.41 (.54)	4.55 (.65)
	독일	3.92 (.56)	4.36 (.49)	4.81 (.47)	4.99 (.61)

주. 괄호안은 표준편차임.

없이 도구성, 수용성 및 통합성의 영역에서 젊은 남자 및 젊은 여자에 비해 더 부정적으로 평가되었다. 이에 비해 자율성의 영역에서는 두 문화권에서 모두 젊은 남자가 가장 부정적으로 평가되었다.

논 의

연구 1에서는 예측한 대로 한국 대학생 집단과 독일 대학생 집단이 전반적으로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에서는 남자노인이 가장 부정적으로 평가되었으며, 여자노인, 젊은 남자 및 젊은 여자에 대한 전반적인 태도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독일에서는 남자노인과 여자노인이 모두 젊은 남자 및 젊은 여자에 비해 더 부정적으로 평가되었다.

한편 하위영역별로 살펴볼 때, 한국과 독일 대학생 집단 간에는 차이가 나타났다. 도구성, 수용성 및 통합성의 영역에서는 한국에서 남자노인이 가장 부정적으로 평가되었고, 독일에서

는 남자노인과 여자노인 모두 이 세 영역에서 젊은이보다 부정적으로 평가되었다. 선행연구(Borogulu 등, 2006)에서는 노인에 대한 문화보편적인 고정관념으로 ‘무기력한(도구성의 영역)’, ‘편협한(수용성의 영역)’, ‘비관적(통합성의 영역)’의 단어들에 보고했는데, 본 연구에서도 이 영역들은 한국과 독일에서 모두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가장 많이 찾을 수 있었던 영역들이었다. 반면 자율성의 영역(예: 독립적인)에서는 두 문화권에서 모두 노인이 젊은 남자보다 더 긍정적으로 평가되었으며, 이 결과는 본 연구에서 참고한 Gluth 등(2010)의 연구와도 일치한다. 이 결과는 한국과 독일에서 모두 노인이 젊은이보다 오랜 기간동안 축적된 삶의 경험을 통해 정신적 및 경제적으로 더 주도적으로 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음을 보여준다.

연구 2

연구 2의 목적은 한국 및 독일 대학생들이 갖고 있는 노인에 대한 암묵적인 태도가 돈의 점

화에 의해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비교하는데 있다. 돈의 의미가 활성화되는 정도가 두 개의 상이한 문화권과 상호작용한다면, 돈의 점화조건에서 노인에 대한 암묵적인 태도가 문화권에 따라 달라질 것을 예측할 수 있다.

방 법

참가자

연구 1에 참가하지 않았던 한국 및 독일 대학생 45명(한국 대학생 46.7%, 남학생 51.1%, 평균 연령 만 20.9세, 표준편차=2.42)이 참가하였으며, 참가자들은 연구참가에 대한 보상으로 과목이수에 필요한 크레딧 혹은 오천원 상당의 초콜렛을 받았다.

연구설계

본 연구의 첫 번째 변인은 점화(돈의 점화조건 vs. 통제조건), 두 번째 요인은 문화(한국 vs. 독일)였으며, 모두 참가자간 변인이었다. 종속측정치는 암묵적 연합검사의 점수였다.

연구도구 및 절차

실험은 돈의 간접적 점화를 위해 실험참가자가 여름방학의 계획에 대해 A4용지 1매의 분량으로 서술하는 작문과제로 시작했다. 돈의 점화조건에서는 글을 쓰는 종이의 바탕에 돈의 사진이 인쇄되어 있었으며, 통제조건에서는 이러한 사진 없이 흰색 바탕의 종이에 작문을 했다. 이 점화조작은 Quoidbach 등(2012)과 Liu 등(2011)의 연구를 참고하여 실시하였다. 작문과제 이후에는 암묵적 연합검사가 실시되었다. 암묵적 연합검사의 자극 제시 및 반응 기록은 e-prime 소프트웨어(Schneider, Eschmann & Zuccolotto, 2002)를 통해 실시하였으며, 자극은 14인치 컴퓨터 화면

을 통해 제시되었다. 암묵적 연합검사는 그림 1과 같이 노인/젊은이의 얼굴 자극 혹은 긍정적/부정적 영어 단어(예: peace, vomit)들을 화면중앙에 제시하고, 참가자가 화면 왼쪽의 범주(예: good - young)와 화면 오른쪽의 범주(예: bad - old) 중에 어느 쪽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하여 반응키를 누르도록 지시했다. 얼굴자극은 얼굴합성 소프트웨어(<http://www.facegen.com/index.htm>)를 사용하여, 나이 및 정서를 조절한 후 하버드 대학의 노인에 대한 암묵적 연합검사(<https://implicit.harvard.edu/implicit/demo/>)를 참고하여 얼굴의 이마 및 턱을 제외시켰다. 또한 얼굴자극은 얼굴합성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아시아와 서양의 특성을 50%씩 합성했다. 화면의 자극에 사용된 단어들은 한국 및 독일 대학생에게 모두 동일하게 영어를 사용했다. 긍정적 단어들은 ‘평화(peace), 휴가(vacation), 웃음(smile), 사랑(love), 행복(happy)’이었고, 부정적 단어들은 ‘질병(disease), 악(evil), 실패(failure), 구토(vomit), 상처(hurt)’였다. 이 열 개의 단어들은 Greenwald, McGhee와 Schwartz(1998)의 연구에서 사용했던 단어들이었으며, 참가자에게 검사를 시작하기 전에 한국어 및 독일어 지시문과 구두설명을 통해 제시하여 각 개별단어들이 긍정과 부정의 범주 중에 어떤 범주에 속하는지를 명료하게 알렸다. 암묵적 연합검사가 시작되면, 참가자는 왼쪽에 할당된 범주들에 부합하는 단어는 키보드의 ‘왼쪽(left)’, 오른쪽의 범주들에 부합하는 단어는 키보드의 ‘오른쪽(right)’을 눌렀다. 참가자들에게는 가능한 신속하고 정확하게 반응키를 누를 것을 지시했고, 오답을 누른 경우 빨간색의 “X” 표시가 나타났다. 참가자의 절반은 노인 얼굴과 부정단어 및 젊은이 얼굴과 긍정단어들이 짝지어지는 일치시행블록(총 40시행)을 먼저 수행했고, 나머지 절반은 노인 얼굴과 긍정단어 및 젊은이 얼굴과 부정단어가 짝지어지는 불일치블록(총 40시행)을 먼저 실시했다. 암묵적 연합검사가 끝나면, 참가자들은 본 연구의 취지를 파악했는지를 기록하는 사후질문지를 작성했다. 사



그림 1. 노인에 대한 암묵적 연합검사 예시

후질문지가 끝나면 참가자에게 감사를 표하고 실험이 종료되었다.

결 과

조작점검

본 연구의 사후질문지를 분석했을 때, 연구의 목적을 파악한 참가자는 없었다.

돈의 점화와 노인에 대한 암묵적 태도

한국 및 독일 대학생이 갖고 있는 노인에 대한 암묵적인 태도가 돈의 점화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점화(돈의 점화 vs. 통제) * 문화(한국 vs. 독일)에 따라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했다. 본 연구에서 노인에 대한 암묵적 태도는 불일치블록(노인 + 긍정 단어, 젊은이 + 부정 단어)의 반응시간 평균에서 일치블록(노인 + 부정 단어, 젊은이 + 긍정 단어)의 반응시간 평균을 뺀 수치로 산출하였으며, 이 수치가 커질수록 노인에 대한 암묵적인 부정적 태도가 강한 것으로 해석된다. 점화의 주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으며, $F(1,41) < 1$, 문화의 주효과도 유의하지 않았다, $F(1,41) = 1.31, p = .26, \eta^2_p = .03$. 그러나 점화 및 문화의 이원상호작용이 유의했다, $F(1,41) = 6.46, p < .05, \eta^2_p = .14$. 표 2와 같이 돈의 점화조

표 2. 돈의 점화에 따른 한국 및 독일 대학생의 노인에 대한 암묵적 연합검사 수치(평균)

	한국 대학생	독일 대학생
돈의 점화조건	288 (168)	118 (152)
통제조건	-127 (759)	321 (308)

주. 괄호안은 표준편차임.

건에서는 한국 대학생의 노인에 대한 암묵적 연합검사의 수치가 독일 대학생의 검사수치보다 유의하게 더 높아서, $t(21) = 2.54, p < .05$, 한국 대학생의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암묵적 태도가 독일 대학생보다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통제조건에서는 한국 대학생의 암묵적 연합검사의 수치(-127)가 0에 비해 유의한 차이는 없었지만, $t(9) = -.38, p = .71$, 독일 대학생의 암묵적 연합검사의 수치보다 낮은 경향성이 나타났다, $t(20) = -1.87, p = .09$. 따라서 통제조건보다 돈의 점화조건에서 한국 대학생 집단의 노인에 대한 암묵적 편견이 독일 대학생 집단보다 더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국 대학생 집단만을 분석했을 때, 돈의 점화조건에서 노인에 대한 암묵적 편견은 통제조건에 비해 높았다, $t(19) = 2.03, p = .054$. 이에 비해 독일 대학생 집단에서는 돈의 점화조건과 통제 조건에서 노인에 대한 암묵적 편견의 차이가 더 적게 나타났다, $t(22) = -1.69, p = .11$. 이 결과는 돈의 점화가 한국 대학생 집단에서 독일 대학생 집단보다 노인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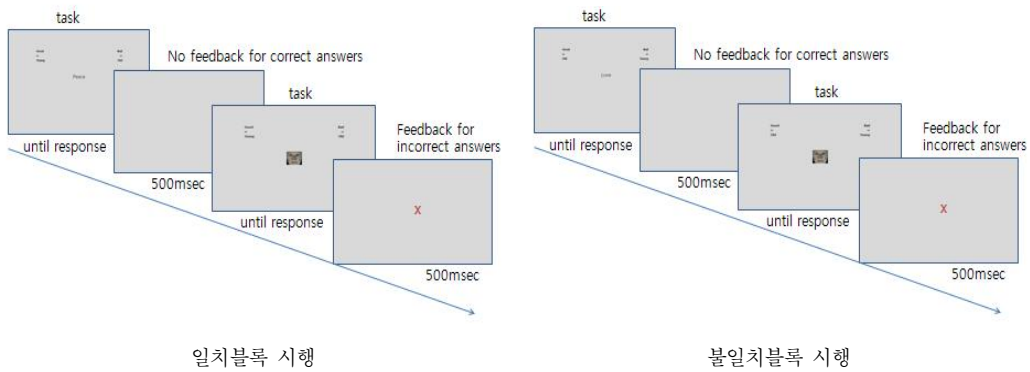


그림 2. 실험절차



그림 3. 노인 및 젊은이의 얼굴자극 예시

대한 부정적 태도에 더 영향을 주었음을 보여 준다.

논 의

연구 2에서는 예측한 대로 돈의 점화조건에서 한국 대학생 집단과 독일 대학생 집단 간에 노인에게 대한 암묵적 태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한국 대학생 집단에서는 돈의 점화조건에서 노인에게 대한 암묵적 태도가 독일 대학생 집단보다 더 부정적이었다. 반면 통제조건에서는 한국 대학생 집단에서 노인에게 대한 암묵적인 부정적 태도가 독일 대학생 집단보다 더 적은 경향이 나타났다. 이 결과는 두 가지 가능성을 지지한다. 첫째, 한국 대학생 집단에서 돈의 개념

이 독일 대학생 집단보다 더 강력하게 활성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둘째, 돈의 개념이 활성화되면 돈의 개념과 상반되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과 도움이 가치를 억제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연구 2의 결과는 돈이 점화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한국 대학생들이 독일 대학생들보다 노인에게 대해 덜 부정적인 태도를 갖는 경향이 있었지만, 일단 외부상황에서 돈의 개념이 활성화되면 독일 대학생들보다 더 민감하게 반응했고, 이것은 사회적 약자인 노인에게 대한 태도를 더 부정적으로 편향시킨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이 결과는 물질주의가 점화되면 타인에 대한 존중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보고한 선행연구(Bauer 등, 2012)와도 일치한다.

전체 논의

본 연구의 결과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연구 1에서 노인에 대한 명시적 태도는 한국과 독일에서 모두 부정적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한국 대학생들은 남자노인을 여자노인보다 더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남자노인은 자율성의 측면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부정적으로 평가되었는데, 이것은 한국의 전통적인 가부장제 사회에서 젊은 남성에게 대해서는 독립적인 가장으로서의 역할이 부각되었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부양부담의 문제와 맞물리게 되면, 퇴직 후 일정한 수입없이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남자노인이 여자 노인에 비해 더 부정적으로 평가되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남자노인이 여자노인에 비해 세대 간 갈등과 노인차별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한국과 독일에서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는 도구성, 수용성 및 통합성의 영역에서 뚜렷하게 나타났으며, 자율성의 영역에서는 남자 노인 및 여자 노인이 젊은 남자보다 더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따라서 한국 및 독일 대학생들은 적극성과 생동감의 측면, 타인과 즐겁게 상호작용하는 사회성의 측면 및 삶에 대한 낙관적인 태도의 측면에서는 노인을 젊은이보다 전반적으로 더 부정적으로 평가했으나, 자기효율성 및 독립성의 측면에서는 남자 노인과 여자노인을 젊은 남자보다 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노인 고정관념에 ‘무기력함, 편협함, 비판적임’이 자주 포함되어 있음을 생각해볼 때, 도구성, 수용성 및 통합성의 영역에서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는 기존의 선행연구들(예: Kite et al., 2005)의 결과와도 일치하며, 그다지 새롭지는 않다. 이에 비해 자율성의 영역에서 노인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는 흥미로운 결과로 볼 수 있으며, 이 결과는 본 연구에서 참고한 Gluth 등(2010)의 연구와도 일치한다. 이 결과를 노인이 젊은 남자보다 일반적으로 더 경제적인 자립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자기효율성의 측면에서 더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이에 대해서는 후속연구들에서 노인과 젊은이에 대한 태도를 하위영역별로 수행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연구 2에서는 돈의 개념이 활성화되는 상황에서 한국 및 독일 대학생들에게서 차이가 나타났다. 돈의 개념이 활성화될수록 한국 대학생들의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는 독일 대학생들보다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돈의 개념이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러한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Vohs 등(2008)은 ‘돈은 자신 스스로에게는 긍정적이지만, 타인과의 상호작용에는 부정적’이라고 말하며, 돈의 이중적 영향을 설명했다. 본 연구의 결과로 볼 때, 이러한 사회적 맥락에서의 돈이 갖고 있는 부정적인 영향은 한국 대학생집단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 결과는 급속한 산업화와 초고속 경제성장이 이루어졌던 한국에서 돈이 서구사회보다 우리의 정서 및 사고에 더 강력한 영향을 주고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아래와 같이 세 가지로 정리해볼 수 있다. 첫째, 연구 1에서는 한국 및 독일 대학생의 노인에 대한 명시적 태도를 측정하고자 하였는데, 문화권에 따른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대한 한 가지 원인으로 연구 1에서 나이 및 성별 이외에는 연구참가자들의 개인적 특성에 관한 사전조사가 미비해서,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었던 다른 변인들을 체계적으로 고려하지 못했던 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선행연구들에서는 연구참가자들의 성격적 특성과 노인에 관한 태도가 유의한 상관관계(예: 외향적일수록 노인에 대한 태도가 덜 부정적임)를 갖고 있다고 보고한 바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연구참가자들의 개인적 변인(예: 사회성, 성격)에 관한 사전조사를 통해 문화권에 따라 노인에 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의 차이를 유발할 수 있는 변인들을 함께 조사하는 것이 유익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참가자내 실험실

계를 통해 동일한 참가자에게 돈의 접화가 실시되기 전과 후에 노인에 대한 태도에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분석해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돈의 의미가 활성화되면 이것과 상반되는 가치(사회적 약자에 대한 존중)가 억제될 것인지의 문제와 한국이 독일보다 돈의 의미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면 이러한 과정이 더 뚜렷하게 나타날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해보고자 했다. 연구결과에서는 돈의 개념적 활성화가 타인에 대한 태도를 부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해석의 대안적 가능성(예: 개인별 가치의 선호도, 부정적 정서의 매개, 힘과 권력을 중시하는 개인차 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참가자 개인에게 Schwartz(1992)의 이론적 모형을 토대로 가치의 선호도를 조사하여 자기향상과 자기초월영역에서의 가치의 활성화정도를 비교하거나, 문화권에 따라 돈의 개념과 정서가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측정하는 것도 필요했을 것이다. 후속연구에서는 돈이 활성화된 조건에서 정서적 변인과 개인차변인을 세분화하여 돈의 의미와 사회적 삶의 관계에 대한 매개과정을 탐색해야 할 것이다. 셋째, 연구 1에서는 한국과 독일 대학생들이 노인에 대한 명시적 태도에서 거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비해 연구 2에서는 돈이 접화되지 않은 통제조건에서 한국 대학생들의 암묵적인 편견이 독일 대학생들보다 낮은 경향성이 나타났다. 이것은 연구 2에서는 노인에 대한 실제 자신의 태도를 측정했지만, 연구 1에서는 자신의 생각뿐만 아니라 노인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인 태도가 한국 대학생들의 응답에 함께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명시적인 태도를 측정할 때 자신의 태도와 사회적 태도를 구분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다. 또한 Fazio와 Olson(2003)은 참가자가 암묵적 연합검사서 실제로 무의식적으로 자극에 반응하는지에 문제를 제기하며, 참가자 자신이 원래 갖고 있는 태도이외에도 사회의 고정관념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을 지적했는데, 후속연구에

서는 한국 대학생들의 노인에 대한 암묵적 연합 검사 결과에 노인에 대한 전통적인 긍정적 고정관념이 영향을 주지 않았는지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사회심리학적 연구들에서는 돈이 우리의 태도와 행동에 영향을 주는 경로에 관계 깊어 있는 분석이 거의 실시되지 않았다. 돈이 가져오는 심리적 변화에 대해 너무 당연하게만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이 연구주제가 되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볼 때, 돈의 개념을 무의식적으로 짧은 시간동안 활성화시킨 상황에서도 타인을 향한 태도가 이미 영향을 받고 달라졌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는 이 실험실 상황보다 훨씬 더 많은 물질주의적인 개념을 활성화시키는 자극들이 난무한다. 우리 사회의 물질주의적인 가치관이 팽배해질수록 돈은 더 우리에게 강력한 힘을 과시할 것이다. 본 연구결과가 시사하는 것처럼 우리 사회의 고정화로 인한 문제와 노인에 대한 차별행동은 돈의 테두리에 우리가 제압될수록 점점 더 위기속으로 빠져들어갈 것이다. 특히 청년실업률이 극심하게 증가하고 있는 오늘의 우리 사회에서는 젊은 세대의 물질주의적인 경향이 증폭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박재홍, 강수택, 2012). 따라서 돈의 의미는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의 정서, 사고 및 행동에 강력한 영향을 끼치며, 타인에 대한 심각한 사회적 차별행동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후속연구에서는 이에 대해 더 관심을 갖고, 세분화하여 연구하실 것을 요청드린다.

참고문헌

김지연, 김민희, 민경환 (2012). 한국판 노인차별주의 척도의 타당화: 대학생 표본을 대상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6, 89-106.
 노경란, 방희정 (2009). 다문화시대 한국 초등학교생의 인종에 대한 명시적 및 암묵적 태도 발달과 태도변화.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5,

- 49-79.
- 박재홍, 강수택 (2012). 한국의 세대변화와 탈물
질주의: 코호트분석. *한국사회학*, 46, 69-95.
- 이영숙, 박경란 (2003). 대학생이 인지하는 남,
녀 노인의 고정관념 비교연구. *노인복지연구*,
19, 83-109.
- 이현지, 방희정 (2012). 노인에 대한 명시적 및
암묵적 태도: 대학생 및 노인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8, 191-213.
- 한세희 (2012). 한국 및 동아시아의 과시현상과
포스트모더니즘. *사회이론*, 102-117.
- 한정란 (2003). 청소년들의 노인에 대한 태도 연
구. *한국노년학*, 23, 181-194.
- Aknin, L. B., Norton, M. I., & Dunn, E. W.
(2009). From wealth to well-being? Money
matters, but less than people think. *Journal of
Positive Psychology*, 4, 523-527.
- Bauer, M. A., Wilkie, J. E. B., Kim, J. K., &
Bodenhausen, G. V. (2012). Cuing consumerism:
Situational materialism undermines personal and
social well-being. *Psychological Science*, 23, 517-
523.
- Boduroglu, A., Yoon, C., Luo, T., & Park, D. C.
(2006). Age-related stereotypes: A comparison of
American and Chinese culture. *Gerontology*, 52,
324-333.
- Bruner, J. S., & Goodman, C. C. (1947). Value and
need as organizing factors in perception.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42, 33-44.
- Castelli, L., Zogmaister, C., & Tomelleri, S. (2009).
The transmission of racial attitudes within the
family. *Developmental Psychology*, 45, 586-591.
- Cuddy, A. J. C., Norton, M. I., & Fiske, S. T.
(2005). This old stereotype: The pervasiveness
and persistence of the elderly stereotype. *Journal
of Social Issues*, 61, 265-283.
- Diener, E., & Seligman, M. E. P. (2002). Very
happy people. *Psychological Science*, 13, 81-84.
- Diener, E., & Seligman, M. E. P. (2004). Beyond
Money: Toward an economy of well-being.
Psychological Science in The Public Interest, 5, 1-31.
- Dunn, E. W., Aknin, L. B., & Norton, M. I.
(2008). Spending money on others promotes
happiness. *Science*, 319, 1687-1688.
- Fazio, R. H., & Olson, M. A. (2003). Implicit
measures in social cognition research: Their
meaning and use.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4, 297-327.
- Frey, B. S., & Stutzer, A. (2002). Happiness,
economy, and institutions. *The Economic Journal*,
110, 918-938.
- Gluth, S., Ebner, N., & Schmiedek, F. (2010).
Attitudes toward younger and older adults: The
German aging semantic differential.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34, 147-158.
- Greenwald, A. G., McGhee, D., & Schwartz, J.
(1998). Measuring individual differences in
implicit cognition: The implicit association tes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4,
1464-1480.
- Greenwald, A. C., Nosek, B. A., & Banaji, M. R.
(2003). Understanding and using the Implicit
Association Test: I. An improved scoring
algorith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5, 197-216.
- Greenward, A. G., Poelman, T. A., Uhlmann, E.
L., & Banaji, M. R. (2009). Understanding
and using the Implicit Association Test: III.
Meta-analysis of predictive valid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7, 17-41.
- Harwood, J., Giles, H., Ota, H., Pierson, H. D.,
Gallois, C., NG, S. H., Lim, T., & Somera, L.
(1996). College students' trait ratings of three
age groups around the pacific rim. *Journal of
Cross Cultural Gerontology*, 11, 307-317.
- Kahneman, D., & Tversky, A. (1979). Prospect
theory: An analysis of decision under risk.
Econometrica, 47, 263-292.

- Kahneman, D., Krueger, A. B., Schkade, D. A., Schwarz, N., & Stone, A. A. (2004). A survey method for characterizing daily life experience: The day reconstruction method. *Science, 306*, 1776-1780.
- Kahneman, D., Krueger, A. B., Schkade, D. A., Schwarz, N., & Stone, A. A. (2006). Would you be happier if you were richer? A focusing illusion. *Science, 312*, 1908-1910.
- Kite, M. E., Stockdale, G. D., Whitley, B. E., & Johnson, B. T. (2005). Attitudes toward younger and older adults: An updated meta-analytic review. *Journal of Social Issues, 61*, 241-266.
- Liu, J., Vohs, K. D., & Smeesters, D. (2011). Money and mimicry: When being mimicked makes people feel threatened. *Psychological Science, 22*, 1150-1151.
- Maior, G. R., Pakizeh, A., Cheung, W.-Y., & Rees, K. J. (2009). Changing, priming, and acting on values: Effects via motivational relations in a circular mode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7*, 699-715.
- Mogliner, C., & Aaker, J. (2009). "The time vs. money effect": Shifting product attitudes and decisions through personal connection.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36*, 277-291.
- Mogliner, C. (2010). The pursuit of happiness: Time, money, and social connection. *Psychological Science, 21*, 1348-1354.
- Nock, M. K., & Banaji, M. R. (2007). Prediction of suicide ideation and attempts among adolescents using a brief performance-based test.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75*, 707-715.
- Palmore, E. (1975). What can the US learn from Japan about aging? *Gerontologist, 15*, 64-67.
- Quoidbach, J., Dunn, E., Petrides, K. V., & Mikolajczak, M. (2012). Money giveth, money taketh away: The dual effect of wealth on happiness. *Psychological Science, 12*, 759-763.
- Richins, M. L., & Dawson, S. (1992). A consumer values orientation for materialism and its measurement: Scale Development and Validation.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19*, 303-316.
- Rosencrantz, H. A., & McNevin, T. E. (1969). A factor analysis of attitudes toward the aged. *The Gerontologist, 9*, 55-59.
- Ryan, E. B., Jin, Y., Anas, A., & Luh, J. J. (2004). Communication beliefs about young and old age in Asia and Canada. *Journal of Cross Cultural Gerontology, 19*, 343-360.
- Schneider, W., Eschmann, A., & Zuccolotto, A. (2002). E-Prime reference guide. Pittsburgh, PA: Psychology Software Tools.
- Schwartz, S. H. (1992). Universals in the content and structure of values: Theoretical advances and empirical tests in 20 countries. In M. Zanna (E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Vol. 25, pp.1-65). Orlando, FL: Academic Press.
- Vohs, K. D., Mead, N. L., & Goode, M. R. (2006). The psychological consequences of money. *Science, 314*, 1154-1156.
- Vohs, K. D., Mead, N. L., & Goode, M. R. (2008). Merely activating the concept of money changes personal and interpersonal behavior.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17*, 208-212.

1 차원고접수 : 2013. 01. 21.

수정원고접수 : 2013. 05. 23.

최종게재결정 : 2013. 05. 24.

Cultural comparison between Korea and Germany in regard to activation of negative stereotypes of the elderly through money priming

Hong-Im Shin

Sogang University

Does money change people? Based on circular model of social values(Schwartz, 1992) and previous research (i.e., Bauer et al., 2012),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explicit and implicit attitudes toward the elderly of young Korean and German students while activating the concept of money in two separate cultural settings. In Study 1 ($N = 207$, 41.3% Koreans), a survey was conducted to compare explicit attitudes toward the elderly between Korean and German students. According to the results, negative attitudes toward male seniors were most dominant in both cultures, while female seniors and young people were perceived overall positively. Study 2 ($N = 45$, 46.7% Koreans) examined whether money priming has a differential impact on young people's ability to behave egalitarian toward seniors. Participants filled out a questionnaire about their summer vacation either in a money prime condition, in which a picture of dollar bills was displayed, or in a control condition without any picture. To assess differences in negative stereotyping of the elderly between different cultures, an implicit association test was conducted. The results showed that there was a significant interaction between money priming and culture. Negative implicit attitudes toward the elderly were stronger among Korean students in a money priming condition than among German students, while these cultural differences were not significant in a control condition. This study provides empirical evidence supporting the possibility that the activation of the concept of money associated with rash industrialization may impair people's ability to respect the elderly and elicit big changes in human behavior in Asian culture.

Key words : money priming, aging stereotype, implicit association test, cultural difference